

GRACE 선교소식

2024년 1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41명 (자체 파송 74%)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은혜교회 개척!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주일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입당 부흥성회 (담임 임인철 목사님) (11/13-11/1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Tanzania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온 땅이 뜨거운 열기로 초목이 다 말라 누런 땅들이 자신을 드러내지만 저희 그레이스센타는 여전히 녹음이 푸르고 먼지 또한 다른 곳과 비교될 만큼 깨끗합니다.

처음 이 땅을 살 때 마을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시덤불숲에 뱀과 전갈, 지네 등 해충과 원숭이, 하이에나가 나오며 무당이 주술가 이었는데, 지난 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개간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이곳은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아프리카 같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사역

건물 하나 하나 올라갈 때마다 눈물의 기도로 벽돌을 올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미래

의 선교사들을 위해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세례요한 프로젝트'가 조금씩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건축을 시작한 새로운 선교사관(큰기쁨의 집 약 45평)이 다 지어져 오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킬레오 그레이스 교회 사역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와 잔치가 이어집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춤으로 이어지고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다윗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주일마다 온 교인이 함께하는 점심식사가 이제 동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일 점심 밥 한끼가 얼마나 중요인지 모슬렘들도 밥을 먹으러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되는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 나누기 사역에서 두 가정의 소를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서 소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동물인데, 소를 받은 가정과 청년이 더욱 신실한 하나



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킬레오유치원 사역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해야하는데, 정부의 방해같은 무관심으로 너무 진행이 느려 마음이 바쁩니다.

초등학교 등록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끝나 내년에는 학교가 오픈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둘람 굴같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Cambodia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일임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믿음이 없어 보여도 참 신기한 것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곳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우리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옮기려고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리던 현지 사역자가 생겼습니다. 11월부터 함께 사역할 계획인데 교회에 그를 위한 책상이라도 하나 해 놓으려니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지 사역자와 함께 사역할 때 서로가 마음이 합하고 믿음이 같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보통 여기 사역자들이 신

학교를 나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거치면서 좋지 않는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통해 얻어진 사역자이니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참 연합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열매였던 찜으런이 2년 만에 전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는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니 이 청년이 또 다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큰 딸이 고등학교를 이곳 캄보디아에서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고 이어서 올해 둘째 아들이 졸업 후 7월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염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보호자인 부모 없이 스스로를 믿음을 지키며 2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실 주님을 믿지만 우린 한낱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께서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 아이들 믿음을 위에 잘 서나가고 있음을 보



고 듣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제목은 요한3서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환경과 문화에 적응도 해야 하고 사람과의 부딪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막내 딸이 내년에 입시입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 아픈 상태입니다. 가끔 생기는 호흡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자 병원을 몇 번 방문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린 이 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나라는 생각에 내년 입시 학과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국 탈북자

최광 / 나연 선교사

2024년 9월 16~27일까지 캄보디아 듣새기 집회에 105명의 현지인이 참석하여 탈북민 김소희 전도사님의 600절 성경암송과 현지인 캄보디아 따께오 오포교회 푸릇전도사님 교회 성도들의 성경암송 150~392절 암송과 캄 장로회 신학교 찬양팀과 귀한 강사 목사님



들의 말씀과 회개 기도회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은 사람들과 25년 신앙 생활했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를받았다는 탈북민의 간증과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은 캄보디아의 복음이 들어온 후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10월 7~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무슬림)에서 현지인 70명과 함께 5박 6일 동안 듣새기(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자)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 70명의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성경 말씀 암송 600절과 구약성경 10독과 신약성경 30독 이상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현지인 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25명이 5박 6일 집회 가운데 성경암송 26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이 10절 이상 암송하였습니다.

♥ 2명의 현지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짚고 참석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목발을 던져버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 3명의 현지인이 집회중에 말씀 통독과 암송하는 가운데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어 버렸습니다.

♥ 현지인 베키라는 25살 자매는 심각하게 귀신이 들렸던 자매인데 10월 10일 저녁 집회 때 귀신이 떠나고 완전히 회복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월 6~11일까지 천안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있을 거게인 1907 평양대부흥 4차 집회에서는 듣새기 집회 때 주신 7배의 놀라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포스터 제작과 홍보영상제작 그리고 스태프콜링과 중보기도 팀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Russia

조경호 / 조명숙 선교사

먼저 최근 교회 사역에 관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김광신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구소련 지도자들에게 만개교회 개척을 선포하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러시아 은혜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각 교회별로 돌아가며 매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혜교회는 그중 10%인 천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기뻐하셔서 최근 2년동안 7개 교회가 개척되도록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러시아 현재의 상황은 2020년 코로나를 시작으로 2022년 일어난 전쟁으로까지 4년의 답답한 시간을 지내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은 암울한 분위기에 소망을 잃은 듯 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나지아 학교 사역 중 유치원 사역과 공사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마음들이 강박해진 풍조속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살수 있다는 조기 신앙 교육은 러시아도 절실합니



다. 그동안 소규모로 유치원을 운영 했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을 접하는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치원 졸업 후 김나지아 학교로 입학하여 계속 되는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크리스찬 리더로 자라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유치원 빈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100명 규모의 전체 건축 비용은 120만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5%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와 그외의 분들을 통하여 25만4천5백불을 지원받았었고, 그 외 약 50만불의 금액은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계시는지의 기적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를 보이콧하여 철수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었던, 삼성, 현대, LG 도 모두 철수하였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팔도 도시락 라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쟁이 났어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 이후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락 라면은 전 러시아의 크고 작은 모든 마켓과 전점터까지 보급되고 있으니, 그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여, 라면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모스크바 본사에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회사를 찾는 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회사가 그 공사를 갖기 위

해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기도하러 학교에 올 때마다 유치원 공사가 멈춰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이 공사를 맡아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왔습니다.

도시락 회사는 공장 건축할 회사 선정을 위해 30개의 건축회사들의 견적을 받아 놓고, 장로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31번째 건축회사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법인장님과 공장장 등이 저희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만남을 가지고 저희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까지 받은 후,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장로님 회사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 공사규모는 모스크바 공장과 다른 공사까지 추가되어 1300만불 규모의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장로님 회사가 도시락 공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유치원 공사의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유치원 외부공사까지 마치고 내년 9월에 개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스니아 Bosnia

신운영 (14기) 선교사

보스니아에 온 지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에 계절이 변하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낍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반팔로 다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긴팔과 가벼운 겨울용 외투가 필요합니다.

오자마자 한 것은 인터넷으로 보스니아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바로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7-minutes languages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단어를 중점을 두면서, 그리고 전에 사두었던 책 2권과 여기 와서 산 1권의 책, 총 3권으로 문법과 병행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배우고 익힌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써먹기도 합니다.

아직은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크로아티아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배운 단어들에 귀에 들리고 대충 이런 이야기구나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보스니아에 오고 그 다음 주에 현지 목사님과(성함은 다리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보스니아에 탐방 여행을 했을 때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이따금씩 연락을 나누었지만 제대로 대화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왓츠앱으로 연락을 드리고 만남을 갖고 체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체류비자를 얻기 위한 절차와 제니차로 가서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시기에 돌아오는 즉시 비자 수속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우셔서 2주 연속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설교는 10월 20일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이번 주 27일은 인생의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보스니아어를 못하기에 따님께서 통역을 보스니아어로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열 평 정도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변에는 커다란 모스크사원이 있어서 성도들은

지난 주 목사님 가정 4명과 두 분의 현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감당해야 할지 목사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25일에 제니차로 이사를 갑니다. 작은 열 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보스니아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한달을 기준으로 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주로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하루를 기준으로 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3배 정도의 수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곳에 들어가기로 했고 모든 가구를 제가 구입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새로 지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입주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도와주는 분은 목사님의 사위인데 제니차의 감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그 감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감옥에서 이삼 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니아에 도착한 이래로 한번도 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스파게티, 햄, 요구르트, 감자, 빵 등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힘든 것은 아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여전히 1시간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미국인 친구를 만나서 이따금씩 수도도 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Tanzania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이음이의 수술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해 수술 일정이 계속 연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탄자니아로의 출국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병원을 연결해 주셔서 이음이의 수술이 2025년 4월 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신마취 사전 검사(3월 11일)와 입원 일정(4월 6일)도 함께 준비되었고, 이를 위해 저

희는 2025년 3월 5일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탄자니아로 가는 티켓팅은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19일에 탄자니아로 출국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출국 준비를 진행하며 저희는 모든 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의료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큰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한 걸



음씩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국

정OO / 정OO 선교사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 나라와 족속 방언의 나라 우리 한민족을 세계 모든 미족 나라에 흠뻑서서 만국의 제사장나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약 200년 전에... 이 나라 400여 종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경스럽게 여기던 불가촉 천민이었던 ㄷㄹㅎ 종족을 택하셔서 이 나라 전역에 대부분 가장 낮은 자리인 청소부와 심부름꾼 등으로 군대막사 병원 학교 정부청사 회사가 있는 곳마다 ㄴㄹㅅ들이 기피하는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대부분 집과 땅도 없이 정부와 회사 기관들이 제공하는 땅과 거주지위에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주권없이 오직 "레위인"들처럼 살아가는 삶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실과 섭리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식드립니다.

제9회 P국 미션컨퍼런스 소식

P국은 한반도의 3.5배의 면적에 6개의주 40개의 광역시 154개의 군단위에 약 2억5천의 인구에 약400여개의 종족을 가진 큰 나라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 3박 4일간에 걸쳐서 열린 9회 ㄴㄹㅅ 컨퍼런스에 전국 각지에서, 아직까지는 비록 소수이지만, 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ㄴㄹㅅ사역자, 그리고 각 지역의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ㄴㄹㅅ과 힌두권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그동안 ㄴㄹㅅ사역 훈련을 받고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자들까지 합쳐서 약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은 이 나라 전역에 걸쳐서 사역자들에게 각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고자 앞으로 주, 광역시, 군 단위의 지역사역자를 임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 200군데의 지역 중 50군데가 임명되었습니다.



P국 크리스찬은 약 200년 전에 지금의 P국 ㄴㄹㅅ이라는 지역의 불가촉 천민인 ㄷㄹㅎ 종족이 집단 개종하여 지금의 약 500만의 크리스찬들의 주류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엔 400여 종족에 그 종족의 주도하에 세워진 교회와 사역기관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역이 빈약한 곳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나라 전 지역에 최소한 200여곳에 미전도지역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와 사역기관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간증문 MK비전캠프

주세계

부모님이 기독교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런 다음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후 부모님은 저를 기독교 캠프에 보내셨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시

작될 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두가 그에게 그토록 많은 희망을 두었나요? 그러나 캠프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보다 더욱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미국 한인은혜교회 선교사 자녀 캠프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히 내적치유수련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타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마음 속에 원한과 분노가 쌓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단지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1분단상 133-11월호>

- 김대규 장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다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가려진 까닭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비단 지식적인 차원만이 아닌란 것이다. 구원을 통해 내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과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를 믿으므로 주님을 만나고 주를 느끼며 교통함을 지속적으로 경험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요14:26).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레19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책자도 나와 있고 교재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점들을 보고자 한다.

첫째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죽어 성령의 열매들로 맺

고, 변화되어 가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특히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성에 따른 습성, 생각, 삶을 끊어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다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지속해야 할 부분이다. 기도의 방법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깨달음이 주어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일상에서 형식을 취하지 말고 수시로 편하게 하나님과 속삭이고 대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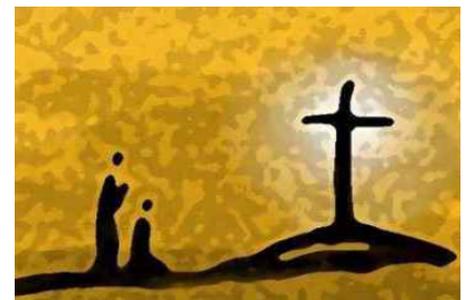
넷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읽으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무작정 읽는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되어 삶에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은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이다.

다섯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므로 주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랑은 참 믿음의 출발점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이러한 삶이 자리를 잡아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되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은 무수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노아는 순종을 통하여,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는 사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며 경험하고 있다면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될 때 매일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다. 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보이게 된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질그릇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정슬기 선교사

1. 12월 19일 탄자니아 출국을 위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3.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4. 이음이의 수술이 2025년 4월 7일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P국 정영태 / 화심 선교사

1. 이 나라 6개주 40개의 광역시 154군단위에 사역자와 사역센터가 세워지게 하소서
2. 매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 정부시위가 그치고 정치와 경제 치안이 안정되게 하소서
3. 수도권 감당할 2차 사역자의 사역센터와 이동수단(오토바이 or 리스)이 준비되게 하소서
4. 브라질 탄탄을 책임지고 있는 4명 사역자의 교회와 사택이 호우로 인해 부서졌는데,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준비되게 하소서(약 5000\$)
5. KP의 베트남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 개종하여 경찰직을 잃고 사역하고 있는, 오저를 통하여 같은 동료 경찰을 전도하여, 두 사람 다 경찰직을 잃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본인들과, 밖에서는 사회와 가정 친척으로부터 고립되어 생활고로 막막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각별하신 보호와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소서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사역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자가 우리교회에 잘 적응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찢으런이 돌아 오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 되서 매주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8.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9.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10. 다니엘 이제 군입대전에 한국에 잘 적응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1. 샤론이 대학입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히 진행되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14기) 선교사

1. 보스니아어와 문화를 잘 배워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 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3. 체류비자수속이 잘 이루어 지도록.
4. 건강을 위해서

이집트 김성희 선교사

1. 30년동안 이집트 장부에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채 지내온 멘시엣나실 복음주의 교회가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공식적인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음악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준비된 기타와 키보드 드럼을 배우고 익혀서 찬양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현재 Egypt 6283개 교회들(콕틱교회:4,713개, 개신교회: 1,570개)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자들이 말씀훈련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행함의 삶을 통해 영적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부탁합니다.

선교현황 62개국 341명 (자체파송 74%) (2024년 10월 기준)

러시아 및 CIS

러시아 쉐 베제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볼고그라드: 조익현(임문자), 헬라빈스크: 김봉년(미란), 사할린: 천병기(사라), 김성웅(지수), 날차: 주성길(손정순), 블라디보스토크: 서금순, 이르쿠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하바롭스크: 정소남(미선),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로스토브: 최성목(혜옥),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최00 겸임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아제르바이잔:** 임성식(김보화)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동북 아시아

한국: 정태호(정은주), 고은희, 김영진, 김에스더, 이기쁨(정은주), 최광(나미연), 남경애, 황영수(정경련), 오세민, 김광문(이용숙) **몽골:** 김연일 **중국:** 김00(송00), 장00(00), 김00(00), 박00(00), 이00(00), 조00(윤00), 유00, 정00, 장00(김00), 이00(소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환(김정희), 정윤기(유미호), 박두희(이선희), 최대웅(권나현)

동남 아시아

베트남: 강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임진섭(양윤희), 심다솔(강애리), 박경덕(신미선) **라오스:** 신00(00), 천00(이00), 유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박효순(이영희)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김대영(김숙형) **미얀마:** 한00(김00), 강00(이00), 곽00(염00), 유00(킨00), 전00(김00), 최00(김00), 김00(00)

서남 아시아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김00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강완식(조영순)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이스라엘: 김00(아00), 양00(00), 장00(최00), 유00(김00), 이00(00) 최00(아00), 강00(R 00), 김00(조00), 신00 **이라크:** 김00, 김00(00), 한00(00) **요르단:** 서00(00)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정00(정00), 장00(서00)

중남미

아르헨티나: 김영선(박혜순), 유성두(강지애) 스텔라리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멕시코:** 이종식,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박세진(천희정)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김정훈(남영자), 송길진

유럽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터키:** 김00(00), 공00(박00), 지00, 김00(00) 최00(이00), 전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김병철(진희)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이정식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 백원일, 홍종철, 김득원,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한 **캐나다:** 함상훈(명숙)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쿠바 신학교 프리덤 (11/10-11/16)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필리핀 GMI Vision Camp & 인카운터 6기 (11/26-12/5)
S/L: 김홍권 목사
문의: 이희걸 안수집사 (714-337-3091)
- 미국 나바호 인디언 성탄절 행사 (12/12-12/14)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서혜란 권사 (714-496-6922)

- CUBA AFA 10기 & GMI 신학교 입학식 (2/2/2025-2/8/2025)
S/L: 한기홍 목사
렉터: 케빈 김 안수집사
문의: 로이 김 안수집사 (213-999-1737)
Orientation: 11/20(수) 6:30pm, VC108호

- GMI 중남미 컨퍼런스 (3/24/2025-3/27/2025)
장소: 파나마
문의: 정민 안수집사 (714-900-4194)
문기훈 목사 (714-351-7212)

-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